■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제목 : 주가 사용하시는 나귀　　성경: 누가복음 19장 28-44절

Tag:

28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29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30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 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31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32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33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34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35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 놓고 예수를 태우니

36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37 이미 감람 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시매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38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39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40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41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42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네 눈에 숨겨졌도다

43 날이 이를지라 네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44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눅19:28-44)

오늘은 종려주일이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주간을 보내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 하시는 날을 기념하는 주일이다.

당시 백성들이 종려나무의 가지를 꺽어 길에 깔아 예수님의 예루살렘 성 입성을 축하하여서 종려주일이라 이름하였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겉옷을 나귀의 등에 깔고, 또 길에 깔았는데 일종의 개선행사였다. 당시에 겉옷은 자신의 의를 상징했기에, 이런 행위는 그러니까 '나의 의는 예수님의 의와 같습니다' 라는 뜻이다. 나는 이분의 뜻에 동의합니다. 나는 이분이 하시는 일에 같은 마음을 가지고 동참합니다 라는 뜻이다.

다른 날에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지 않으셨는데 이날만은 나귀를 타셨다. 그 다음날에도 나귀는 타지 않으셨다. 보통은 개선행진을 위해서는 말을 타고 입성한다. 당시에 전쟁을 통해서 어떤 성이든지 함락시키면 장군이나 왕이 군사들을 이끌고 그 성을 접수하고 통치하기 위해서 개선행진을 한다. 보통은 군악대를 동원해서 행진곡에 맞추어 입성해서 통치를 위한 예식을 치루고 통치에 관한 법률을 선포하고 왕궁을 접수하고 군사들을 배치해서 치안을 유지한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 대신 나귀를 빌려 타셨고,(잠시후 돌려 주었겠

지만) 군악대 대신 군중들의 호산나 찬미를 받으며, 제자들이 외치는 구호를 들으며 입성하셨다.

왕이나 장수답게 성을 접수할 수 있는 권세나 군대가 없어서 그렇게 하신게 아니다. 하고 싶으셨다면 12연대의 천군과 천사들이라도 동원하실 분이시고, 돌들을 통해서라도 군악대를 조직하실 분이시다.

다만 통치 이념이 당시 사람들의 생각과 다르셨다. 나귀를 타신 이유는 겸손의 왕이셨기 때문이다. 나귀뿐만이 아니라 무엇이든 소유하실 필요가 없으셨고, 만약 필요한 것이 있다면 즉시 전능하신 능력으로 만들어 사용하셨을 것이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이 외치는 호산나 찬미 소리가 귀에 거슬렸다. 저런 찬미는 분명히 왕이 성에 입성할 때나 하는 소리이지, 지금 나귀를 타고 초라한 행진을 하는 예수님께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소리라는 판단을 하였기 때문에 속으로 의분이 생긴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겉옷을 결코 땅에 깔지 않았을 것이다. 정치적으로 예수님의 소속 당원이 아닌 셈이다.

실제로 예수님은 정치적으로 헤롯의 궁을 접수하지도 않으셨고, 빌라도가 있는 총독부를 접수하지도 않으셨다. 그저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청소 하셨을 뿐이다.

그렇게 하실 예정이셨다면 솔직히 예수님도 나귀를 타시거나 호산나 찬미를 받으실 필요가 없지 않으셨나? 예수님께서 굳이 나귀를 타시려 하시니 제자들이 오버액션을 하게 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라는 약간은 과장된 구호를 외친 것이다. 이에 대해서 '왕이라는 단어는 빼고' 라고 한마디쯤은 하셔야 하지 않았을까?

38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왜 예수님은 돌들이라도 바로 그렇게 외쳐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예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세상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실현되는 그런 나라였기 때문이다.

즉 예수님께서 끝까지 애타 하시며 안타까워하시는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깨달으면 당시 예수님께서 왜 그처럼 바리새인들에게 대꾸하셨는지를 짐작할 수 있게 한다.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예루살렘의 회복이셨다.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왕권은 예루살렘 성전을 통한 신정통치였을 가능성이 크다. 당시에도 총독부의 역할은 한정되어 있었다.
예수님은 로마의 총독부가 물러가기를 원하셨을지 모른다.
예수님은 헤롯왕가의 통치에도 부정적이셨다. (아무튼 둘 중의 하나의 통치체계는 사라져야 했었다.)
이 두 세력에게 대해서는 되도록 함구하셨고, 그들의 통치권세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임시방편으로 맡기셨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행동하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가지 않으신 것이다. 나중에 재판 때문에 끌려 가셨지만, 결코 그들 앞에서도 예수님의 왕권을 긍정하지도 부정하지도 않으셨다. 긍정하지 않으신 이유는 네가 궁금해 하는 방식으로서의 왕권은 아니기 때문이다. 부정하지도 않으신 이유는 스스로가 만왕의 왕이신 것을 아시기 때문이다. 즉 통치 방법이 다르다는 의미이다.

41-44절의 내용을 보면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 예수님은 결코 예루살렘 성의 멸망을 원하지 않으셨다. 충분히 유다 민족은 멸망 당하지 않는채로 복음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뜻이다. 만약 그랬다면 지금까지 예루살렘성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요, 온 세계의 중심지가 되어있을 것이며 세상은 훨씬 더 빨리 진보의 길을 걷게 되었을 것이다.

이미 당시에도 산헤드린이라는 당시로서는 대단히 독특한 사법기관이며 통치기관이 있었다.(그들에게는 성전을 지키는 군사도 있었다.) 굳이 전쟁을 통해서 나라를 되찾을 필요가 없었다.

누가는 예루살렘 입성 이전에 열므나의 비유 이야기를 통해서 당시의 통치체제에 대해서 설명하셨다.

> 27 그리고 내가 왕 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눅19:27)

얼마든지 평화적인 방법으로 나라를 지속할 수 있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만약 바리새인, 율법학자, 제사장, 레위족속들이 예수님의 메시야성을 인정하기만 했어도 예루살렘은 저주를 당하지 않았을 것이며, 예수님은 로마총독부와 헤롯왕의 무리들에 의해서(사두개파) 십자가를 지게 되셨을 것이다. 아마 예수님께서 이 잔을 내가 마시지 않을 수 있다면 마시지 않게 해 달라는 기도는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지 않게 해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지 않게 해 달라는 중보의 기도였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야 전체적인 내용에 오류가 생기지 않는다.) 보통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견디기 힘들어해서 이 잔을 마시지 않게 해 달라고 해석하는데, 그렇게 되면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전능성과 메시야성과 대속성이 문제된다.) 예수님도 자신이 이것을 위해서 오셨다고 누누이 말씀하지 않으셨는가? 다만 예루살렘의 멸망까지 막을 수 있었으면 좋을 뻔 하였다고 하셨으며 아무도 모르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셨다. 골고다로 십자가를 지시며 올라가실때도 뒤따르며 우는 여인들을 향하여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고 하셨을 정도다. 바리새인들만이라도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순종했더라면 가능했을지 모른다. 어차피 사두개인들은 정치인들이었으니까.

다윗왕가의 몰락도 예상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필연적 결과는 아니었다. 헤롯왕이 아닌 다윗의 후예가 예수님을 맞이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다윗왕가의 우상숭배가 그 가능성을 없앴다.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은 닫힌 계시가 아니라 미래를 향해서, 천년

왕국을 향해서 열려있는 계시이다. 현재 세계는 한국을 포함해서 미래를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열려있다. 하나님은 한국의 영적 부흥을 갈망하고 계신다. 아멘.

왜 이웃 동네에 있는 나귀를 이용하셨을까? 나귀 주인에게 복을 주기 위함이다. 주가 사용하는 나귀가 되라는 의미가 담겨있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크고 감당하기 힘든 어떤 희생이 아니다. 너의 나귀를 빌려줄 수 있겠는가? 보리떡 다섯 개만 봉헌 할 수 있느냐? 물고기 두어마리만 봉헌 할 수 있느냐? 너의 나라의 부흥을 위해서 나귀가 될 수 있느냐? 나귀가 되어서 예수님을 태울 수 있겠는가? 내가 굳이 말이 될 필요는 없다. 말이라면 더 좋겠지만, 나귀라도 괜찮다. 어차피 능력은 예수님께 있다. 예수님은 당신의 나라를 건설할 때 별 필요없는 나를 동참시키시기 원하시셨다.

유월절이 가까워지고 있다.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월절에 아가서를 낭독한다. 아가서에는 하필이면 술람미 여인이 등장한다. 얼굴이 햇빛에 그슬려서 볼품없는 시골 아낙이다.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오빠들이 양떼를 지키라고 해서 냄새나는 짐승을 키우는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왕의 총애를 입는다. 술람미 여인과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나귀새끼가 동일한 의미로 겹쳐진다.

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면서 나라를 위해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을까? 위기 가운데 있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한 주간 됩시다. 아멘.

〈찬양예배〉

제목 :　　성경:

Tag: